

KIA 타이거즈 감독·단장 빈자리 누가 채울까

예상 못한 동반 사퇴에 '자리' 노리는 이들의 움직임 빨라져 신임 감독은 '내부 승진·외부 인사', '인물·실력' 의견 분분

스토브리그 시작과 함께 KIA 타이거즈가 가장 뜨거운 팀이 됐다. 감독과 단장 자리가 동시에 비면 서장의 포스트 시즌이 전개되고 있다.

KIA는 지난 1일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타이거즈 역사상 첫 외국인 사령탑으로 이름 올린 '빅 리그 스타' 맷 윌리엄스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고, 사의를 표명한 이화원 대표와 조계현 단장의 뜻도 수용했다.

야구단을 대표하는 3인방이 동시에 교체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야구인들의 관심은 '차기 감독', '차기 단장'에 쏠리고 있다.

내부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동반 사퇴에 자의 반타의 반 '자리'를 노리는 이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감독이 물러날 때마다 비슷한 풍경이 연출되곤 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예전에는 '그룹 자리'로 인식됐던 단장 자리도 선수 출신들에게 개방되면서 야구인들의 노려볼 수 있는 두 자리가 동시에 나온 셈이다.

확실한 가이드 라인은 없는 만큼 구단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과 소문이 쏟아지고 있다.

신임 감독에 대해서는 '이제는 내부 승진이 나올 때가 됐다'와 '외부 인사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뉜다. 외부 인사 옵션을 놓고도 시선은 '스타성을 갖춘 인물로 팬심 끌기'와 '이름보다는 검증된 실력으로 결과 내기'로 다르다.

KIA 입장에서 달레마다.

KIA는 앞서 선동열, 윌리엄스 감독이라는 '슈퍼 스타'를 사령탑으로 영입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초반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끝은 좋지 못했다.

선수로서 화려했던 결과를 냈던 '스타 감독' 모두 쑥스러운 성적표를 작성하며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고, 팀은 도로 '리빌딩'을 목표로 삼아야 했다. 무엇보다 '재미 없는 야구'로 팬들의 원성을 샀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름값을 배제하고 가기도 부담스럽다. 다른 자리에서 검증된 인물이 많지 않고, 1군 감독이라는 무게감도 있기 때문이다.

단장 자리를 놓고도 그룹의 선택에 시선이 쏠린

다. KIA는 2017년 우승을 이룬 뒤 전략적으로 팀을 이끈 허영택 단장을 구단 첫 전임대표로 승진시켰다. 그리고 고심 끝에 김기태 감독을 보좌해 우승을 함께했던 조계현 수석코치를 단장으로 선임하며 화제를 모았다.

수석코치로서 보여준 '소통' 능력을 높게 사면서 특급 승진을 단행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실무 경험이 전무했던 조 단장은 현장-프린트 모두 아우르지 못했고, 내부 소통 부재와 미숙한 일처리로 끊임없이 구설수에 휘말렸다. 또 선수 출신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돼 선수 영입·코칭 등에 과도한 관여를 하면서 우려를 사기도 했다.

실패를 경험한 KIA는 전임 대표이사를 원래대로 겸임으로 돌린 것처럼 단장 자리도 그룹 인사로 선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선수 출신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실무 경험과 능력을 갖춘 '야구인'으로 후보를 좁혀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선택은 그룹의 몫이다. 3인방 교체로 개혁을 예고한 기아가 어떤 방향으로 빈 자리를 채울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4일부터 합평 캠프·광주 캠프 마무리 훈련

사령탑 공석에도 '호랑이 군단'의 시계는 돌아간다.

KIA 타이거즈가 4일부터 합평-KIA 챌린저스 필드에서 마무리 훈련을 시작한다.

이번 훈련은 30일까지 27일간 진행되며, 퓨처스 선수와 2022년 신인 선수 50명이 참가해 체력·기술 훈련을 소화한다.

지난달 30일 키움과의 경기를 끝으로 시즌을 마무리한 1군 선수들은 11일부터 시동을 건다.

이들은 29일까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훈련을 한다. 광주 캠프 참가자들은 맞춤형 체력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할 예정이다.

권혁경, 김석환, 박민, 오정환, 최정용, 박정우, 이우성은 4일 합평 캠프에서 훈련을 시작한 뒤 11일부터 광주 캠프에 참가한다.

2022년 신인 내야수인 김도영과 윤도현도 18일 광주 캠프 이동해 프로 데뷔를 준비한다.

한편 퓨처스 캠프단은 이병호 총괄코치가 이끌고, 광주 1군 선수단은 김종국 수석코치가 지휘

한다.

◇합평 캠프 참가 선수 명단

▲투수(22명) = 강이준 김양수 김현수 김현준 남재현 박건우 서덕원 송후섭 유승철 이민우 이준형 장민기 장재혁 장지수 전상현 최용준 최지민 강병우 김찬민 황동하 손진규 옥준호 ▲포수(5명) = 김선우 신범수 권혁경 이성주 신명승 ▲내야수(11명) = 강경학 김규성 김영환 김창용 김석환 박민 오정환 최정용 김도영 윤도현 윤민석 ▲외야수(12명) = 김호령 김민수 류성현 오선우 이영재 이준범 이진영 박정우 이우성 백도형 한승연 박상준

◇광주 캠프 참가 선수 명단

▲투수(8명) = 고영창, 박진태, 윤준현, 이준영, 임기영, 장형식, 정해영, 홍상삼 ▲포수(3명) = 김민식, 한승택, 권혁경 ▲내야수(10명) = 김선빈, 김태진, 류지혁, 박찬호, 최정민, 황대인, 김석환, 박민, 오정환, 최정용 ▲외야수(4명) = 최형우, 이창진, 박정우, 이우성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의 윌리엄스 감독과 조계현 단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차기 감독, 단장을 놓고 야구인들과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30일 키움과의 최종전 이후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KIA 선수단.

<KIA 타이거즈 제공>

물러설 곳 없는 광주FC, 오늘 서울 상대 '배수진'

K리그1 35라운드 홈경기 엄원상·엄지성 골 노려

광주FC가 FC서울을 상대로 결승전 같은 무대를 갖는다.

광주는 3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서울과 K리그1 2021 35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서울은 승점 4점 차 11위다. 최하위인 12위에 머물고 있는 광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다.

파이널라운드의 첫 경기였던 앞선 강원전에서는 진한 아쉬움이 남았다. 전반전 페널티킥으로 선제 실점을 한 광주는 윤보상의 선방쇼와 함께 이찬동, 허을의 골로 역전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후반 45분 터진 신세계의 환상적인 슈팅에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2-2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아쉬움 속에서도 위안은 있었다.

광주는 경기 내내 적극적인 압박과 태클로 상대를 봉쇄하면서 선제실점에도 승점을 보냈다.

또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골이 만들어지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최근 4경기에서 김중우, 두현석, 엄원상(2골), 엄지성, 이희곤, 이찬동, 허을이 득점을 기록했다.

김호영 감독도 강원전이 끝난 뒤 "선제골이 중요한데 실점했지만 역전도 했다. 앞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주축점 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없고 다양한 득점원들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찬동 골도 그렇고 허을도 골을 넣어서 자신감이 붙었을 것이다. 엄원상, 엄지성과 더불어 이 선수들이 득점에 가세해준다면



K리그1 12위 광주가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11위 서울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인다. 사진은 앞선 서울전에서 몸싸움을 하는 허을.

<광주FC 제공>

면 지금 어려운 시기를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는 경기였다"고 언급했다.

서울은 나상호, 기성용, 지동원, 고요한 등 K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를 보유한 '전통의 강호'지만 힘든 2021 시즌을 보내고 있다.

9승 10무 15패(승점 37)를 기록한 서울은 11위로 강등권에서 파이널라운드를 맞았다.

지난 9월 안익수 감독이 부임한 후 3승 3무 1패를 기록하는 등 예전의 기량을 찾아가고 있지만 앞

선 라운드에서는 0-2패를 기록했다.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두 경기 연속 퇴장자가 나오기도 했다.

광주는 홈 이점을 살려 강력한 중원 싸움과 압박 수비로 상대 발을 묶고, 엄원상과 엄지성의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골대를 노리겠다는 각오다.

물러설 곳이 없는 광주가 다양한 공격 옵션으로 서울을 꺾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수문장 윤보상, K리그1 34라운드 베스트11

광주FC의 수문장 윤보상(사진)이 34라운드 베스트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K리그1 34라운드를 평가해 베스트11을 발표했다.

강원FC와의 홈경기에서 호수비 퍼레이드를 펼친 윤보상이 골키퍼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광주는 페널티킥과 신세계의 환상적인 골로 2실점을 했지만 윤보상의 활약으로 2-2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보냈다.

MVP는 전북현대의 쿠니모토에게 돌아갔다.

쿠니모토는 수원과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10분 강력한 왼발슈팅으로 선제골을 장식했고, 활발한 움직임으로 전북 공격을 이끌었다.

쿠니모토의 활약에 힘입은 전북은 4-0 승리를



거두고 1위 자리를 지켰다.

한편 베스트팀으로는 제주가 선정됐다.

제주는 대구와의 원정 경기에서 김오규, 이창민, 주민규, 조성준의 득점 행진에 힘입어 5-0 대

승으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베스트 경기는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울산과 수원FC의 경기로 선정됐다. 이날 울산은 쫓고 쫓기는 접전 끝에 3-2로 승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누누 경질 토트넘, 콘테 전 인터 밀란 감독 선임하나

누누 이스피리투 산투(47·포르투갈) 감독을 4개월 만에 경질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홉스퍼가 2일(현지시간) 안토니오 콘테(62·이탈리아) 전 인터 밀란(이탈리아) 감독을 선임할 거란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영국 BBC와 스카이스포츠 등은 토트넘이 이르면 이날 콘테 감독과 계약을 마치고 감독 선임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판에 따르면 토트넘은 1년 6개월의 계약 기간을 제시했으며, 콘테 감독은 1일 영국 런던에 도착해 구단과 대면 협상에 나섰다.

토트넘은 1일 산투 감독의 경질을 발표했다.

2017-2018시즌부터 올버햄프턴 원더러스를 이끈 산투 감독은 올해 6월 30일 조제 모리뉴 감독의

뒤를 이어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았다. 계약 기간은 2023년까지였다.

하지만 토트넘은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내며 9위(승점 15·5승 5패)까지 떨어졌다.

이달에는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에서도 피테서(네덜란드)에 0-1로 패해 G조 3위로 추락,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놓였다.

토트넘은 결국 산투 감독과 동행한 지 4개월 만에 경질을 결정했고, 즉시 새 사령탑을 모색하고 나섰다.

올해 4월 모리뉴 감독 해임 후 두 달이 넘도록 차기 감독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던 만큼 이번에는

발 빠른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